

오세훈 “10년간 민간보조금 1조원… 잘못된 관행 손질”

“민간 참여 명분 보조금 지급
책임성·공공성 저하, 편중 지원
세금누수·특혜제공 등 관행
성과평가 등 통해 정책 개선”



오세훈 시장이 13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재정지원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개소를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고 성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유관 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특혜를 주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서울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과 거기에서 이뤄진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 구조와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세금 누수 ▲ 시민

단체 출신 인사들이 위탁업체 사업 전 반을 관장하고 특정 단체에 특혜 제공 ▲ 과도한 예산 집행 대비 성과평가 미흡 등의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냈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나 시설관리 같은 단순 집행사무 등에 한정된다.

오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특정 단체에 나눠주는 일이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에 해당하냐”며 “시장이 스스로 책임하에 시 공무원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그동안의 리그 속에서 운영돼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면서 “그리고 이들 단체가 또 다시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 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

해 운영했다더라면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면서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고 심지어 센터 신규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 설립 후 직접 해당 시설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견제 없이 팽창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들을 손질해 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잘못 뿌려내린 관행들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각종 성과평가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제도와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시장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폐지한다는 관점에서 감사나 평가가 아니다”며 “사업마다 가진 장단점을 검토하고 효과를 극대화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25개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DDP디자인스토어’ 온라인 스토어 개설

내일 양천구에 25번째 센터 개소
돌봄·심리상담·역량교육 등 제공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4층에 자리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서울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가정에서 돌봄서비스와 각종 사업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긴급돌봄, 심리상담, 역량교육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집중되는 기존 사례관리와 달리 가족 전체에 통합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15일 양천구에 25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이로써 시는 1개 광역센터-25개 기초센터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앞서 시는 2017년 5개 센터(광진·동대문·은평·마포·강서)를 시작으로 2018년 6개 센터(성동·도봉·서대문·금천·서초·강남), 2019년 6개 센터(용산·중랑·구로·동작·성북·강동), 작년 5개 센터(종로·강북·영등포·관악·송파)를 개관했다. 올해는 2~3월 노원구와 중구에

센터가 각각 문을 열었다.

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별 센터가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가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센터는 돌봄시설 휴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가족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활동키트 등을 제공한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정에는 방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강선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디자인재단, 700여종 상품 준비



DDP디자인스토어 온라인 스토어 메인 화면.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디자인스토어에서 오프라인으로만 구매 가능했던 상품을 비대면으로 살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DDP디자인스토어는 입점 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20%로 책정해 영세한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온라인 DDP디자인스토어에서는 개성 넘치는 신진 디자이너의 제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 장인의 프리미엄 상품,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

한 스페셜 상품까지 700여종의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 ▲홈데코 ▲문구·사무 ▲주방 ▲가구 ▲패션·잡화 등의 카테고리에서 관련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추석연휴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안한다

서울시, ‘추석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는 ‘고강도 방역’과 ‘민생경제 활력’을 양대 축으로 하는 ‘2021년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막차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역 등 귀성·귀경인구 유

입이 예상되는 역사 8곳에서는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25곳은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임시선별검사소 55곳 중 일부 시설은 문을 열지 않거나 단축 운영하는 곳이 있어 방문 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같은 치료 시설은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10% 할인, 이달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1인당 자치구별로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시는 17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3 | 해질 / 18:42

9월 14일 (화)
음력 : 8월 8일

수도권 날씨
20~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30, 동두천 18/30, 가평 16/29, 파주 18/30, 서울 20/30, 양평 17/29, 수원 20/29, 용인 20/29, 평택 18/29, 백령도 21/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바이든 “민주주의 작동 할수없다 믿는 독재자 많아” /사진 뉴스시스
▲ 美국방부 “北미사일 시험발사, 주변국·국제사회에 위협”

▲ 日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 1위는 ‘고노 다로’
▲ 8월 일본 기업물가 전년비 5.5%... ‘6개월째 상승’



▲ 교황, 장 절제술 후 첫 순방... ‘극우’ 헝가리 총리와 면담 /사진 뉴스시스
▲ 아이티 검찰 “양리 현 총리, 대통령 암살 용의자와 통화”